

연세대학교교회 2018. 5. 6.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행 10:44-48, 요일 5:1-6, 요 15:9-17)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에배에 참석하신 대학교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목회자로서 저의 생각과 고민을 교우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진리다, 언제나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진리에 근사치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리 자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부활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오늘 성서정과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진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는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전날에 보았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가운데서 보았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의 온갖 잡다한 짐승과 새들이었는데, 그때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입에 뱉 수 없다고 응답하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고,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과 복음을 들은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과하시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종은 서로 다를지라도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국적은 서로 다를지라도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출신지역은 서로 다를지라도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별은 서로 다를지라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빈부의 정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식의 정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유식자든, 무식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신체장애가 있든 없든, 신체장애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아가 성적 취향은 서로 다를지라도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성전환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신앙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신자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분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만 낳으시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낳으시고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부모님이 낳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애가 있는 형제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애가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보람을 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고민을 교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운운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차별금지 관

런 학생조례를 언급할 때마다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과 학생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와 소위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시도교육청의 학생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과 학생조례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되고, 성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들을 동성애자가 되도록 유혹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을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항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이방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아내나 아들의 아내와 동침하거든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짐승과 함께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죽이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죄의 항목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다른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넘어가지만, 오직 동성애의 항목에 대해서만은 마녀사냥을 하듯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여성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불의를 범한 것처럼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투 열풍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투 열풍이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투 상황은 누구라도 조금만 방심해도 일어날 수 있고, 저 역시 언제라도 미투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시민운동과 비폭력의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 토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토론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유독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해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을 늘상 경험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며칠 후에 토론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프로토콜에서 저의 말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토론의 경험과 그 이전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아서 한 말이었지만, 과연 그 말을 보편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의 말이 성차별이나 성추행의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경험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학생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자라는 틀 속에 가둔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니 용서해주세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나서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초로 했던 ‘어떤 말’과 나중에 했던 ‘취소한다는 말’ 모두가 함께 남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작은 몸짓 하나라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살피본 후에 해야겠지요.”

미투의 문제든, 동성애의 문제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두 자녀나 열네 명 조카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coming out’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곤 합니다. 어느 동성애 가족의 경험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아버지는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떤 단계를 거쳐 잘 맞는 여성을 만나면, 동성애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그때까지는 당황하지 말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의 동성애 현실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의 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했든지, 아내나 내가 부모노릇을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아들로 하여금 뒤틀린 성적 지향으로 발전하도록 거들었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야.” 그후 아버지는 부인할 수도 없고, 더 설명할 수도 없게 되자, 하나님의 개입과 아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들이 동성애를 더 이상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들의 동성애 현실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이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마음의 평정을 지녀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동성애가 다양한 성적 지향의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아들의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왼손잡이를 비정상적으로 보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왼손잡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괴롭히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적인 행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의 월경 기간 7일 동안에 부부관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간음한 남녀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까요? 알

몸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해야 할까요? 일부다처제와 첩을 두는 일을 허용해야 할까요? 남자 형제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자녀생산을 도와야 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 남녀가 서로 승낙하는 성적인 관계를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싱글 성인 남녀들은 성적 관계를 자유롭게 해도 될까요? 정액이나 월경 중의 피에 접촉한 사람은 불결할까요? 매춘부는 죄인이지만,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께서는 간음의 상황 말고는 어떤 이혼도 금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간음 이외의 모든 이혼을 죄라고 해야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나 독신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금지하는 적지 않은 관행들을 허용하고 있고, 성경이 허용하는 적지 않은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편견이며,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1년 열두 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성실하고, 배우자 앞에서 정직하고, 배우자를 책임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약하고 부족한 자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누구라도, 설사 동성애자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범주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 그들의 행복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더불어 누리며 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